

집단교섭 2차, 요구안 설명 화재 발생 대비·집단교섭 협약서 요구



4월 24일(목) 14시 금속노조 경기지부에서 2025년 집단교섭 2차 교섭을 진행했다.

사용자는 집단교섭 참가 10개 사 17명이 참가, 노동조합은 11개 사업장 46명이 참가했다. 사측 2개 사 교섭대표가 참여하지 못한 것에 대해 부득이한 사정을 확인하고, 향후 교섭에는 반드시 각사 2인 이상이 참여할 것을 약속했다.

사회 변화 노력 공감

이규선 지부장은 “노동조합 요구안 최대한 성의 있게 설명할테니 잘 들어주시고 듣는 걸 넘어서 수용할 방안까지 고민해달라”며 짧게 인사했다.

디와이피(동양피스톤) 공충국 상무는 “과거 요구와 합의 다 훑어봤다. 조합은 늘 비정규직, 원하청 문제, 기후위기, 일터괴롭힘 등 사회문제를 먼저 제기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요구를 해왔고, 그것이 지금의 사회 변화를 있게 한 큰 힘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방향에 사용자도 공감하지만 요구를 수용하는 시기, 속도, 재정 등이 늘 문제. 요구안 설명 열린 마음으로 잘 듣겠다”고 답했다.

통일1 중앙2 지부3

이어 엄미야 사무국장이 올 해 금속노조 통일요구 중앙교섭요구지부 공동요구를 설명했다.

노조 통일요구는 **직업중지권 1**가지다. 직업중지요구의 주체를 넓히고, 중지한 작업의 재개 절차를 명확히, 문제 제기한 노동자에 불이익이 없도록하며, 직업중지권에 관한 교육·손실보상·포상 등까지 안전한 일터를 위한 요구를 담았다. 노조는 올해 통일요구 원안쟁취 없이 교섭을 끝내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중앙교섭 요구는 **기후위기 대응, 금속산업최저임금 2**가지다. 기후위기에서 정부 뿐 아니라 노사의 책임을 공감하고, 기후 관련 더욱 강화되는 국제기준에 함께 대응해가는 조항으로 요구를 재웠다.

지부 요구는 **3**가지다.

1) 임금인상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실질임금 하락분을 반영해 141,300원을 요구한다.

2) 화재발생대비는 작년 아리셀 참사를 돌아보며 변화하는 기후와 산업으로 인한 새로운 재난에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로 요구했다. 화재 예방과 화재 발생 시 노동자 대피에 관한 계획 수립, 교육과 훈련, 즉각 대피 등의 내용을 담았다.

3) 집단교섭 협약서는 2003년 집단교섭 시작 후 2008년 합의서 작성 이래 매년 해당 연도 합의로 누적해 온 협약서들을 하나의 협약서로 정리하자는 요구다. 시간이 흐르고 사업장이 변경되는 등 과정에서 합의가 유실되거나 바로 확인이 어려운 상태로 있어 협약서 형태로 단순화하자는 것이다. 기존 집단교섭 사업장들은 협약의 형식이 바뀌는 것, 2020년 이후 결합한 사업장들은 협약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집단교섭 결합 시 적용하지 않은 조항들을 적용하는 과정이 필요한 요구다.

차기 교섭 · 질의응답

차기 교섭은 5월 8일(목) 14시 금속노조 경기지부에서 진행한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요구안에 대한 질의와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빠르게 진행하자는 노동조합 요구에 따라 질의응답은 1차례만 진행하기로 했다. 교섭위원들은 평가회의를 통해 교섭 운영 방안과 교섭위원 활동 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